

## 서평: 具滋均의 『朝鮮平民文學史』에 대하여

백승호\*

구자균의 『조선평민문학사』는 여항문학 연구의 선성으로서 현대 연구자들도 그 문학사적 구도나 시각을 일정 부분 빚지고 있는 중요한 저작이다. 이 글은 구자균의 『조선평민문학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그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한문학 연구의 전문성이 높아지며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연구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고민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초기 한문학 연구서인 이 책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검토한다면 이와 같은 한문학 연구 상의 난점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자균은 1931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로 입학하여 1936년에 법문학부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논문은 「胥吏詩人を中心として觀たる近代委巷文學」이었다. 이 논문을 수정하여 1948년 文潮社에서 『조선평민문학사』를 출간하였고 1955년에는 杏林書院에서 문조사 본의 제목을 바꾸고 서문 일부만 고친 채 『韓國平民文學史』를 출간하였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졸업 후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45년 10월에 보성전문학교의 교수로 취임하였고, 1946년 9월에 보성전문학교가 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부교수가 되었다. 1956년에 김형규, 손낙범과 공저로 『국문학개론』을 출간하였다. 1964년에 역주본 『파한집·용재총화』를 출간하였으나, 동년 11월 52세로 작고하였다. 그리고 1966년 후학들이 생전의 발표 원고를 모아 『國文學論叢』를 박영사에서 출간하였다.

『조선평민문학사』는 여항문학에 대한 선구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인의 생애, 일화에 대해 몇 가지 특징과 윤곽 정도를 서술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하는 데 그쳤고<sup>1)</sup> 작품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며<sup>2)</sup>, 평민의 개념을 양반 중인 층 그리고 천민을 제외한 일반 백성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당시 중인 문학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sup>3)</sup> 비판이 있었다. 또한 서리, 중인, 서얼을 중심으로 평민 문학사를 서술한다고 하였는데, 서얼 문인에 관한 서술이 다른 두 작가군에 비해 소략한 면이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 책은 개념의 엄밀성이나 개별 작가 연구의 깊이에 있어서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근대주의에 입각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가 시인 각론 부분을 서술할 때 참고했던 주요 문헌인 『里鄕見聞錄』<sup>4)</sup>, 『壺山外史』<sup>5)</sup> 등이 현재 번역되어 있고, 『여향문학총서』, 한국문집총간 등 한문 자료들이 영인 출판되어 문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자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개별 연구가 심화되었지만 『조선평민문학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문제의식과 서술방법에 대한 고민은 소장 연구자에 이룰수록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구자균이 연구 활동을 하던 194·50년대는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한국한 문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다.<sup>6)</sup> 그런데 그는 국문학사의 흐름을 장르를 종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려는 일환으로 “근대평민문학”이라는 담론을 고안하였고 이를 서술하기 위해서 한문학을 연구하였다. 게다가 그가 검토한 자료는 “平民詩人の 詩文集” 41종, “士夫詩人の 詩文集” 36종, 그 외 시선집 5종 등 詩文集 총 82종, 歌謠集 4종, 傳記流·史籍流 14종, 隨筆流·野乘流 15종, 그 외 일본인 저술 2종 도합 117종에 달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였고 현재에도 연구자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근대 평민 문학이라는 문

1) 박노준, 「1930년대 시가문학사 연구의 두 성과 - 조선시가사강과 조선평민문학사」, 『한국학논집』21·22, 한양대학교 1992, 83면.

2)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10~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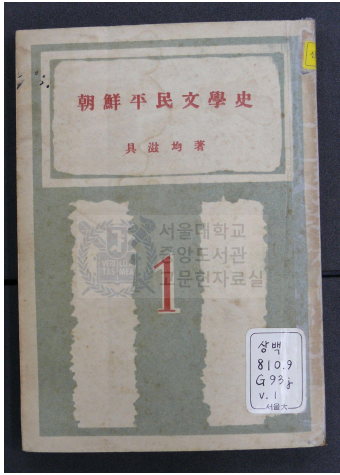
3)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20~24면.

4) 유재건, 『이향견문록: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 이야기』,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개정판, 문학동네,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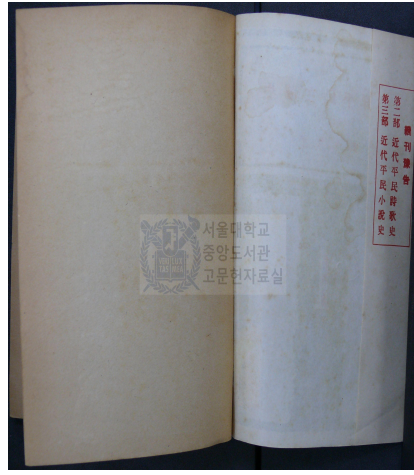
5) 조희룡, 『조희룡전집』,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한길아트, 1999.

6) 이종목,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13, 한국한시학회, 2004.

학사적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그 근거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도판1 1948년 文潮社 刊 『조선평민문학사』 표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도판2 문조사 刊 『조선평민문학사』 책날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조선평민문학사』의 부제 “第一部 近代平民漢文學史”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는 제2부 제3부 연작으로 기획된 책의 일부였다. 즉, 제2부 近代平民詩歌史, 제3부 近代平民小說史 등 국문학사 전반에 걸쳐 평민 문학을 고찰할 예정이었는데, 후속 연구가 완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조선평민문학사』 序에서 다음과 같이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朝鮮精神文化 遺産 特히 그 一領域인 朝鮮古典文學 속에서 지금까지 全然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은 未開拓 分野에 對하여 그 初期的인 資料整理를 함과 함께 그 史의 體系를 세움으로써 朝鮮文學史를 보다 完全한 것이 되게 하여 보고자 하는 意圖 밑에서 近代 平民의 文學活動 特히 明確히 歷史的 系列 위 에서 볼 수 있는 漢文學를 대상으로 하여 史의 概觀을 한 것이 이 小著이다.<sup>7)</sup>

7)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문조사, 1948, 序.

저자 본인이 밝힌 집필 의도에 따르면, 연구 성과가 없는 미개척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초기적인 자료 정리를 하고 이를 사적 체계 속에서 정리 할 것이며, 근대 평민의 문학 활동 가운데 명확히 역사적 계열 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한문학을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조선 평민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평민”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는 “第一篇 近代平民의 構成” 장에서 조선시대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9개로 나누었다.

第一 宗親, 第二 國舅, 第三 駙馬, 第四 兩班(鄉班), 第五 中人,  
第六 庶孽, 第七 胥吏, 第八 常民, 第九 賤民<sup>8)</sup>

이 가운데 중인 이하 계급을 평민에 귀속시켰다. 종친·국구·부마를 계급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중인·서얼·서리를 과연 평민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구자균 본인도 중인·서얼·서리가 상민·천민과 구별되는 특수한 계급이라는 자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숙종 연간 이후로 양반의 실권이 쇠퇴되고 말단 행정과 재력이 위항인에게 귀속 되는 과정에서 평민 문학이 발전한다는 구도로 국문학사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인·서얼·서리를 평민을 대변하는 문학 주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中人·庶孽·胥吏 階級을 古文獻에서는 주로 委巷人이라 稱하였거니와, 그들은 勿論 常民·賤民보다는 優越한 社會的 地位를 享受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最下級官吏로서 兩班貴族의 手足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永世的 禁錮狀態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常民 賤民과 더부러 平民이라 指稱하여도 좋을 것이다.<sup>9)</sup>

구자균은 위항인 계급이 주도했던 시조, 판소리 등 여타의 국문학 장르와의 일관된 문학사적 흐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처럼 ‘귀족·평민’이라는

8) 구자균, 앞의 책, 15면.

9) 구자균, 위의 책, 16면.

대립적 개념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인·서얼·서리는 독서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문학 활동이 가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후속 연구에서도 중인·서얼·서리가 특수한 계급임을 인정하면서도 귀족과 평민이라는 대립적 개념 사이에서는 평민에 귀속됨을 강조하였다.

委巷人이란 兩班·官僚는 勿論 아니요, 그렇다고 李朝社會에 있어서 우리 全人口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農民을 비롯한 工·商, 바꾸어 말하면 常民(良民)과 및 賤流도 아닌 特殊한 存在이다. 中人은 譯官·醫官·觀象監의 官員 등을 世襲하는 身分이기 때문에, 胥吏와 衙前은 中央·地方의 各官衙에서 一般民衆과 直接 接하는 吏員을 世襲하는 身分이었던 까닭으로 그리고 庶孽이란 그 父系가 兩班·官僚이거나 富裕한 良民이었기 때문에, 모두 一般農·工·商 또는 賤流들과는 自然히 階層을 달리 하여 讀書할 수 있는 따라서 人間으로서 自身の 權利를 主張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려져 있는 特殊한 存在이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를 平民과 貴族의 두 概念으로써 分類한다면 委巷人은 역시 常民·賤流와 함께 平民에 所屬시켜야 할 것이며, 兩班·官僚는 國王을 統帥로 하는 王族·宗親들과 함께 貴族의 範疇에 넣어야 하리라고 믿는 바다.<sup>10)</sup>

구자균이 이처럼 위항인 즉 서리·중인·서얼을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별도의 계급으로 다루지 않고 굳이 평민 문학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가 계급적 시각에서 조선시대 문학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문예사회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구자균은 1935년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조선일보에 『朝鮮古典文學의 階級的 觀察論』이라는 기사를 6차례에 걸쳐서 기고하였다.<sup>11)</sup>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계급적 문학연구 방법은 『조선평민문학사』에도 이어지고 있다.

朝鮮文學研究의 現段階의 特徵은 그 事實의 檢討究明을 事業으로 해야 할

10) 구자균, 「근대적 문인 장훈에 대하여」, 『국문학논고』, 박영사, 1966, 26면.

11) 조선일보 아카이브, 1935년 11월 16일-27일자 참조.

朝鮮文學 研究의 創作時代라고 할 것이다. 從來에 別로 研究되지 않은 胥吏, 中人, 庶流의 이른바 委巷文學의 史的概觀의 現段階의 重要性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李朝와 같은 階級社會의 文學을 各各 階級個別的으로 考究하는 것은 다만 文學研究 그 自體를 爲하여 뿐 아니라, 文學을 社會에서 他律的으로 構成規定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 文學을 社會事象의 하나로서 研究하고, 作品을 客觀的으로 보려고 하는 文獻學的方法, 歷史學的方法, 社會學的方法에 依하여 風俗 階級, 制度, 그 外의 環境과의 關係交涉을 研究하는 文學의 全面的 全體的 理解에 依하여 비로소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社會學的으로 思想史的으로 또는 政治史的으로도 意義 있는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12)</sup>

그는 자신이 처했던 한국문학 연구의 상황을 “朝鮮文學 研究의 創作時代”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평민 문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평민 문학의 사적 구도를 제시한 것은 개념 정리와 사실에 대한 사적 정리가 당대 조선 문학 연구의 시대사적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조선 문학 연구를 막 개척하는 시대에 적합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구자균이 연구를 시작할 즈음에는 서리·중인·서얼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편이었으므로, 그가 이 책을 통해 “평민 문학”의 구도를 제시해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조선평민문학사』의 큰 목차를 제시하고 하위 목차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緒論

第1篇 近代平民의 構成

第2篇 平民文學 總論

第3篇 詩人 各論

結論

12) 구자균, 앞의 책, 1면.

제1편 근대평민의 구성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李朝의 社會制度에서는 조선의 사회제도를 개괄하여 조선시대 평민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숙종 연간에 이르러 서리·중인·서류 계급이 행정과 경제면에서 실권을 늘려갔고 양반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苔泉集』, 『興猶堂全書』 雜文「通塞議」, 이가환의 『八域誌』 四民總論 등이 인용문으로 제시되었다.

제2장 胥吏階級の 構成은 조선 초기 이래 사회적 지위가 하락 일로였던 서리가 당쟁이 격화되고 향리 권력이 증대되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문화사, 사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 『掾曹龜鑑』, 『經國大典』 鄉吏條, 『南冥集』 戊辰封事, 『芝峯類說』, 『숙종실록』 소재 송시열의 상소, 『林下筆記』 권22 「吏無陞遷之論」, 『重峯集』, 『杏下述』 「興誦」 등이 인용되었다.

제3장 中人階級の 構成에서는 중인이라는 명칭이 그들이 서울의 中央 및 長橋, 즉 水標橋 부근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데에서 유래했음을 밝히고, 그들의 지위가 서리보다는 약간 높지만 사대부들에게 부림을 당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 중인과 庶流가 사회적 지위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백증을 이루어 中庶라는 용어가 역사 문헌에 빈출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인은 기술방면의 직업을 세습하며 점차 한 사회 계급으로 고착화 되었고 교유 및 혼인도 그들 안에서만 이뤄지게 되어 중인 계급을 이루었다는 점 역시 밝혔다. 이 장에는 『象胥紀聞』, 『杏下述』, 『朝野會通』, 『退溪集』, 具庠의 「華谷集序」 등이 인용되었다.

제4장 庶流階級の 構成에서는 庶流가 禁錮된 연원을 밝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늘어 하나의 사회 계급을 이루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영조 연간 서얼 허통을 하였으나 정조 연간에 이미 그것이 유명무실해졌다가 갑오경장 때 서얼 차별이 철폐되었음도 언급하였다. 그들의 직책은 검서관, 이문학관, 제술관이 되는 것에 그쳤다고 하였다. 『太宗實錄』 태종15년 徐選의 上言, 『경국대전』 「禮典 諸科條」, 『행하술』, 金相福의 『通塞問答』, 『葵史』, 『增補文獻備考』 권193 選舉考, 『續大典』 등이 인용되었다.

제2편 平民文學總論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平民文學의 發生에서는 평민문학을 서리, 중인, 서얼이 담당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近代에 있어서의 貴族文學과 平民文學은 어떠한 것일까? (중략) 眞情한 意味에 있어서의 平民文學은 常民의 힘으로 創作 傳誦된 小說·時調·口傳民謠·戲曲 等일 것이다. 그러나 李朝의 平民大衆, 이른바 黔首(常民)는 讀書教養의 길이 막혔었으니 創作은 姑捨하고, 文學鑑賞까지도 할 能力이 없었음이 事實이다. 다만 胥吏·中人·庶孽 등 委巷人 中에 不遇詩人群이 있다. (중략) 이른바 委巷人들은 不遇坎坷한 가운데 能히 富貴勢利者인 士夫詩人에서 볼 수 없는 特質을 가진 詩를 詠出했던 것이다. (중략) 漢文學 時調文學上의 平民文學은 그들의 活動이 그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으니, 要컨대 近代平民文學은 胥吏·中人·庶流의 文學에서 求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13)</sup>

위 인용문을 보면 평민문학의 발생에서 위항인들이 불우한 가운데서도 사대부 시인들에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질을 가진 시를 창출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그가 평민 문학의 서술하는데 서리·중인·서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해서도 밝혔다. 바로 한문학·시조문학상의 평민문학은 그들의 활동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평민문학을 그들에게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민문학이 그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 원인을 吏文을 담당한 서리, 이문학관, 통신사 수행원, 규장각 검서관 등에 임명된 서류, 역관을 담당한 중인 등 그들의 직업에서 찾았고 나아가 숙종 이후 문화 보급, 물질문명의 발전, 사대부 문인들의 후원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조가 규장각에 문한이 뛰어난 서리를 내각서리로 임명한 것과 사대부 문화가 위항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는 李家煥의 「風謠續選序」, 吳光運의 昭代風謠序, 姜鳳文의 『玉溪遺稿』 등을 인용하였다.

제2장 時代的 概觀에서는 평민문학의 시대를 구분하였다. 위항문학은

13) 구자균, 앞의 책, 29~30면.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계기로 평민이 자각하고 서리·중인·서류가 사회계급으로 존립하는 데 이르는 속종 연간부터 대두한다고 보았다. 그는 평민문학이 속종조부터 이조 말기까지 약 250년 사이에 발생하고 발전하며 쇠퇴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격적인 평민 문학의 대두기 앞에 요람기를 설정하였다.

평민 문학이라는 개념은 구자균 이전에 안확이 먼저 사용한 것이다. 안확은 『조선문학사』와 <평민문학을 부흥한 장훈 선생>에서 양반 문학에 대립되는 하층 문학을 지칭할 때 “평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안확은 양반 문학에 대립되는 하층의 문학을 설정하기 위해 평민 문학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구자균은 위항인, 상민, 천민의 구분은 있었으나 근대성과 계급성에 입각한 “근대 평민”문학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항문학의 상위개념으로 평민 문학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에는 손낙범, 고정옥 등 동료 연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문학의 여러 장르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조선평민문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하였다.

#### 第1기 搖籃時代

洪裕孫(1431-1529)부터 육가잡영 소수 시인까지

#### 第2기 擡頭時代

속종부터 영조 중기까지(1675-1745)

#### 第3기 全盛時代(송석원시사시대)

영조 중기부터 순조 초까지(1745-1810)

#### 第4기 小詩人群輩出時代

순조 초부터 철종대까지(1810-1870)

#### 第5기 衰頽時代

고종대 이후(1870-)

제3장 時調史上的 平民은 국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평민 문학을 고찰하기 위해 부연한 장이다. 구자균은 속종 연간 이후로 시조 문학의 중심이 평

민 시인에게 옮겨왔음에 착안하여 작가의 측면, 작품의 측면에서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리시조작가의 시조 작품의 근대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西浦漫筆』, 靑丘永言後跋이 인용되었다.

(진략) 士夫作家의 作品 內容이 功業, 慨世, 君臣, 頌祝, 懷古, 遊覽 등의 高踏的, 道德的인 思想을 詠出하고 있음에 반하여, 近代胥吏時調作家의 作品에는, 卽興的으로 그들의 眞情을 描出한 것이 많아, 따라서 生活과 藝術과의 相卽性이 顯著히 그 緊密度를 더하여, 그것이 一面에 있어서, 諧謔, 滑稽, 好色, 艷情, 別恨 等の 享樂主義的 遊戲的 文學이거나 혹은 野趣에 찬 卽興詩, 俚謠와 같은 것이 많아지고 描寫가 露骨化되고 平民化되었다.

제4장 鄉吏와 文學에서는 京司委巷人의 작품이 위향인 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영남·호남 향리층의 문학에 대한 기여를 지적하였다. 호남의 위향 시인으로는 黃五, 王錫輔 등을 들었고, 영남의 위향시인으로는 崔天翼, 姜봉문, 李時善을 들었다. 그 밖에 민요, 판소리, 가곡의 창작 및 전승에 있어 향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로 『逸士遺事』의 기사를 참조하였고 신광수의 『關西樂府』, 『歌曲源流』 등의 기록도 참조하였다.

제3편 詩人各論 부분에서는 제2편의 시대 구분에 입각하여 각 시기별 주요 시인을 소개하고 그들의 시를 일부 소개하고 있다. 제1기 搖籃時代에는 洪裕孫을 선구적인 작가로 평가하였고 朴枝華, 徐起, 宋翼弼을 세 명의 閭巷 儒家詩人으로 꼽았다. 그밖에 劉希慶, 白大鵬 등 風月香徒 시인, 崔奇男, 南應琛, 鄭禮男, 金孝一, 崔大立, 鄭栲壽 등 『六歌雜詠』 시인을 다루었다. 『名臣錄』, 『星湖僊說』, 『牛溪集』, 李敏敍의 「守菴集序」, 『聞見筭記』, 『於于野談』, 『霽湖詩話』, 『澤堂別集』, 『일사유사』, 『惺叟詩話』, 『松溪謾錄』, 『溪西野談』, 『龜峯集』, 『영조실록』, 『소대풍요』, 李植의 「村隱集跋」, 『碩齋稿』, 『海東外史』, 『靑莊館全書』, 『熙朝軼事』, 『이향건문록』 『東洲集』, 『靑邱詩話』, 『龍洲遺稿』, 李景奭의 龜谷集敍 등을 인용하였다. 당시 규장각 소장이었다고 밝힌 村隱故舊眞跡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제2기 擡頭時代 제1절 ‘落社 시인’에서는 林俊元, 石希璞, 崔承太, 庾繼

洪, 李得元, 姜就周, 金萬最, 玄德潤, 金富賢 등을 다루었다. 제2절 ‘洪世泰, 高時彦’에서는 洪世泰와 『海東遺珠』, 高時彦과 『昭代風謠』를 다루었고 제3절 ‘三鄭’에서는 鄭來僑, 鄭敏僑, 鄭後僑를 다루었다. 제4절에서는 黃宅厚, 李彦瑱, 金尙彩 등을 다루었다. 제5절 ‘其他的 詩人’에서는 崔天翼, 伯胤耆, 嚴漢賓 등 여러 시인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인용서와 중복된 서목을 빼면 『浣巖集』, 徐宗泰의 南川豆村稿序, 『枕雨談草』, 『柳下集』, 『恕菴集』, 『歸鹿集』, 박지원의 虞裳傳, 李德懋의 이목구심서, 金瀟의 『松穆館集跋』을 인용하였다.

제3기 全盛時代(松石園詩社時代) 제1절 ‘松石園詩社의 千壽慶’에서는 송석원시사와 千壽慶에 대해 상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張混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 그를 “委巷詩人の 大家”라고 칭하였다. 제3절 ‘趙秀三’에서는 趙秀三을 홍세태, 이언진, 정지윤, 장지완과 함께 위향시인의 명가라고 일컬었다. 이 절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조수삼의 문집을 『秋齋集』이라고 칭하지 않고 『經畹集』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소장된 『경원총집』은 필사본 2권 1책인데 구자균은 8책으로 된 『경원집』을 인용하고 있어 8권 4책의 『추재집』을 지칭하는 것인지, 다른 이본이 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sup>14)</sup> 松石園詩社 구성원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제4절에서는 車佐一, 金洛瑞, 王太, 朴允默을 소개하였고, 제5절에서는 其他的 松石園詩人群像을 다루면서 崔北, 李奩佃, 嚴家四世詩人, 池德龜, 朴永錫, 徐慶昌, 林得明, 盧允迪, 李景淵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6절에서는 鄭樵夫와 그 외 시인을 다루었다.<sup>15)</sup> 그밖에 강봉문, 劉匡振 등 여러 시인을 언급하였다. 신태권의 『저암만고』가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存齋集』, 『호산외기』, 『而已廣集』, 『淵泉集』, 『金陵集』 등이 인용되었다.

제4기 小詩人群輩出時代 제1절에서는 張混 門下の 詩人으로 장지완을 들었고 그와 함께 張孝懋, 高晉遠, 林瑜 등의 행적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김진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였다. 제2절 七松亭詩社詩人에서는 池錫

14) 초기 한국한문학 연구자의 저술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저술이 소략하다고 건너뛴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집약된 언급 속에 내포된 광범위한 정보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15) 鄭樵夫의 이름을 『침우담초』, 『淸脾錄』, 『이향건문록』에 근거하여 鄭鳳이라고 밝혔다.

觀, 金羲齡, 朴基悅, 朴基淵, 金永冕, 劉元柱 등을 다루었고 제3절에서는 鄭芝潤, 玄錡를 별도로 자세히 다루었다. 제4절에서는 卞鍾運, 李尙迪 등 역관의 행적과 중국 문인과의 교류에 주목하였다. 또 제5절에서는 稷下社 詩人을 살펴보았는데, 劉在建, 崔景欽, 趙熙龍, 李慶民이 여향인 전기를 정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밖에 李至和, 曹匡振, 田琦 등을 언급하였다. 『斐然箱抄』, 『碧蘆集』, 『秋齋集』, 『歎齋集』, 姜瑋의 「皎亭先生詩集序」 등의 자료가 인용되었다.

제5기 衰頹時代에서는 제1기 칠송정시사시인(其二) 속칭 萬里長城집 시인들을 언급하였고, 제2절에서는 金奭準, 최성학, 崔理煥, 崔漢綺, 박돈행 등을 매우 간략히 언급하였고 제3절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역시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평민문학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평민문학사』 안에 그가 초기에 의도했던 집필 의도와 문제의식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자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여럿 있겠으나, 그가 참고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문헌의 방대함,<sup>16)</sup> 장훈과 같은 중요 시인에 대한 선별 안목, 그리고 후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평민 문학의 사적 구도 제시와 같은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근대”와 “평민”이라는 틀을 가지고 끈질기게 문학사적 시각을 발전시킨 그 문제의식의 진정성은 현재 젊은 학자들에게 필요한 연구 자세라고 하겠다.

구자균의 시대는 한국문학연구의 “창작 시대”였다. 그래서 그는 사실 규명을 사업으로 삼았고 문학사적 시각에서 근대 평민문학에 관한 사실을 검토 규명하였다. 당시에는 한문으로 된 기록을 “우리 문학 울타리 너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무용지물”이라고 한 바 한국한문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연구 대상의 범주도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자료가 대부분이었다.<sup>17)</sup> 그러나 구자균은 한국문학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평민문학이라는 개념을 고안하고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는

16) 평민 시인 시문집 41종, 사대부 시인 시문집 36종, 가요집 4종, 전기 및 사적류 14종, 수필 및 야승류 15종, 그 외 일본인 저서 2종 총 117종

17) 1922년 안화는 『조선문학사』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을 다루었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여 서술의 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당대의 연구 성과 또한 반영하였다.<sup>18)</sup>

여항 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 책에서 시작된 문학사적 시대 구분은 현재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6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아직도 한국한문학 연구의 대부분이 사실 검토 규명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본다.

【참고】 具滋均 저 『朝鮮平民文學史』 차례(第一部 近代平民漢文學史)

\* 文潮社 (1948) /杏林書院(1955) 동일

序

緒論

第1篇 近代平民의 構成

第1章 李朝의 社會制度

第2章 胥吏階級の 構成

第3章 中人階級の 構成

第4章 庶流階級の 構成

第2篇 平民文學 總論

第1章 平民文學의 發生

第2章 時代的 概觀

第3章 時調史上的 平民

第4章 鄉吏와 文學

第3篇 詩人 各論

第1기 搖籃時代

18) 張混에 대한 안확의 연구, 신재효에 대한 曹雲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第1節 洪裕孫

第2節 閻巷三儒家詩人

第3節 「風月香徒」詩人

第4節 「六家雜詠」詩人

## 第2기 擡頭時代

第1節 落社 詩人

第2節 洪世泰、高時彥

第3節 三鄭

第4節 黃宅厚、李彥瑱、金尙彩

第5節 其他의 詩人

## 第3기 全盛時代(송석원시사시대)

第1節 松石園詩社와 千壽慶

第2節 張混

第3節 趙秀三

第4節 車佐一 金洛瑞 王太 朴允默

第5節 其他의 松石園詩人群像

第6節 鄭樵夫와 그 外 詩人

## 第4기 小詩人群輩出時代

第1節 張混 門下 詩人

第2節 七松亭詩社 詩人(其一)

第3節 鄭芝潤、玄錡

第4節 卞鐘運、李尙迪 等

第5節 稷下詩社人

## 第5기 衰頹時代

第1節 七松亭詩社(俗稱 萬里長城集)詩人(其二)

第2節 其他의 詩人

第3節 倭政時代의 狀況

結論

主要한 參考文獻